

“백화점 보양식 한자리에…무더위 날릴 건강 먹거리 풍성”

광주신세계, 장어·삼계탕 등 선풍
롯데백 광주점, 녹색 한우 일별 특가
전복 등 다양한 재료…추가 할인 혜택도

광주신세계와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다가오는 초복을 맞아 한우 등 다양한 보양식을 할인가에 선보인다.

광주신세계는 17일 “본관 지하 1층에서 초복을 앞두고 18일부터 24일까지 장어와 한우 등 보양식 재료를 할인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먼저 광주신세계 본관 지하 1층에서는 대표적인 보양음식인 장어를 만날 수 있다. 민물장어와 바다장어를 모두 갖춰 고객 기호에 맞춰서 선택 가능하며 여수갯장어 한 팩(500g)은 6만8천원에서 5만8천원으로 할인 판매한다. 민물장어는 구이와 탕으로 먹기 좋게 손질돼 있으며 한 마리 한 팩에 2만2천800원에 구입 가능하다.

초복에 많이 찾는 삼계탕 재료들도 선보인다. 닭을 비롯해 황기와 대추 등 삼계탕 재료를 한 자리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삼계탕용 닭은 1만1천900원에서 8천900원으로 할인한다. 또한 삼계



광주신세계 본관 지하 1층 식품관에서는 보양식 재료를 찾는 고객들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한우등심과 치마살을 할인 판매한다.

〈광주 신세계 제공〉

탕 밀키트(1만4천900원)도 마련돼 간편하게 복 달임 음식을 준비하고 싶은 고객들이 많이 찾는 것으로 예상된다.

1등급 한우 등심은 100g 당 1만6천900원에서 1만3천900원, 1등급 한우 치마살은 100g 당 1만7천900원에서 1만3천원으로 각각 할인 판매한다.

특별한 보양음식을 찾는 고객들에게는 민어를 추천한다. 탕과 구이로 가능한 손질된 민어는 한 팩에 1만9천800원에 판매하며 이밖에 광주신

세계는 전복, 병어 등 다양한 보양식 재료들을 선보인다.

같은 기간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한우 대축제’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하1층 행사장에서 동양축산과 녹색한우 업체가 다양한 한우 부위를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동양축산은 주말 3일간(18~20일) 한우등심(1++등급)을 100g당 9천900원, 한우사태는 100g당 2천980원에 줄서기 선착순 한정 특가로 판매한다.

녹색한우는 1++등급의 고급 한우를 일별 특가로 18일 한우등심을 100g당 1만900원, 19일에는 한우채끝을 100g당 1만1천900원에 만날 수 있으며 20일에는 국거리 및 불고기를 100g당 3천900원에 한정수량으로 제공한다.

이 밖에도 행사 기간 중 다양한 한우 부위를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며 당일 한우를 10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선착순으로 5천원의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관계자는 “무더운 여름 보양식으로 인기 높은 한우를 보다 저렴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가족과 함께 건강한 초복을 준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태호 기자

이마트, 장바구니 물가 안정 위한 할인행사 진행

농식품부와 손잡고 3주간

가격 오른 배추·무 등 저렴

이마트가 농림축산식품부와 손잡고 주요 농산물 할인 행사를 통해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절감을 위해 앞장선다.

이마트는 17일 “이날부터 약 3주간 농식품부와 협력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인 ‘농할’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차별로 품목을 변경해 여름 제철 농산물이나 최근 시세 오름세를 보이는 농산물을 할인된 가격에 선보일 예정이다.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이마트 자체 20% 할인가에 농식품부 지원 20%가 추가 적용될 경우 정상가 대비 38%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다.

이마트는 1주차 행사로 오는 24일까지 복숭아·거봉포도·토마토·무·배추·오이·양파·부추 8 품목을 선정했다. 여름 대표 제철 과일인 복숭아 3종 ‘부드러운 복숭아(4-6입/팩)’, ‘달콤한 황도복숭아(4-6입/팩)’, ‘아삭한 복숭아(4-6입/팩)’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정상가 1만2천400원에서 38% 할인된 7천936원에 판매한다.

‘거봉 포도(1kg/팩)’는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농할’ 행사가 1만2천147원, ‘대추방울토마토(1kg/팩)’는 5천747원에 구매할 수 있다.

최근 이른 폭염과 잦은 집중호우 등으로 시세가 상승하고 있는 채소나 필수 요리 채소 역시 다수 행사 품목으로 선정됐다.

‘손질 배추’의 경우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38% 저렴한 3천827원, ‘무’는 개당 행사가 2천99원에 준비했으며 ‘백오이(5입/봉)’의 경우 행사가 3천187원으로 개당 환산 시 637원 수준에 구매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필수 요리 채소인 ‘양파(1.8kg/망)’와 ‘부추(500g/단)’는 각 행사가 2천547원과 1천587원에 선보인다.

이번 농할 행사는 최근 농산물 시세 상승 속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진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농산물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이마트와 농식품부가 협업해 준비했다.

확대한 이마트 농산담당은 “최근 기후 영향 등으로 인한 농산물 시세가 오름세를 보이는 상황 속에서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추고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농식품부와 농산물 할인 행사를 준비했다”며 “3주간 진행되는 이번 ‘농할’ 행사를 통해 여름 제철 과일과 주요 채소를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안태호 기자

홈플러스, 초복맞이 ‘복날 보양식 대전’

영계 두마리 3천663원 판매

장어·문어 등 보양식 재료 특가

홈플러스가 초복을 맞아 다양한 ‘복날 보양식’을 특별 할인가에 제공한다. 〈사진〉

17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오는 22일까지 ‘복날 보양식 대전’을 진행하고 삼계탕 등 각종 보양식 재료, 간편 보양식 등을 특별 할인가에 선보인다.

올해 ‘복날 보양식 대전’은 대표적인 보양식인 삼계탕은 물론 염소탕, 오리탕, 치킨 등 고객들의 보양식 메뉴 선택지를 대폭 확대했으며 집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간편 보양식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각종 보양식 재료들을 과격적인 가격에 제공한다.

20일까지는 ‘1등급 생닭(700g, 서귀포점 제외)’을 3마리 이상 구매 시 마리당 3천660원에 제공한다.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무항생제 영계 두마리 생닭(500g*2입, 서귀포점 제외, 1인 2봉 한정)’은 농할쿠폰 20% 추가 할인 혜택을 적용해 3천663원에, ‘국내산 손질한 바다장어(500g)’를 1만6천900원, ‘국내산 손질

한 민물장어(1kg)’를 3만9천900원에 각각 판매한다.

백숙 신상품도 선보인다. 유통사 단독으로 출시한 ‘들깨백숙’은 고소한 들깨가루와 백숙용 육수가 동봉돼 있어 30분만 조리하면 된다. 가격은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20일까지 7천950원에 판매한다.

다양해지는 보양식 트렌드에 발맞춰 삼계탕 외 다양한 간편 보양식 상품도 강화해 출시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상품은 ‘들깨 오리탕’, ‘염소탕’, ‘한우 나주식갈탕’ 3종으로 20일까지 2팩 이상 구매 시 팩당 5천940원에 선보인다.

또한 보양식 시즌을 겨냥해 다양한 부위의 냉장 닭구이 상품도 새롭게 선보이고 가격 행사를 진행한다.

대표 신상품인 ‘꼬꼬 핫치즈 닭다리살 구이(500g)’는 국내산 닭다리살에 매콤한 양념과 꾸덕한 치즈소스를 더하고 김가루가 동봉돼 있어 치

밥 형태로도 즐길 수 있으며 행사기간 40% 할인한다. 슬라이스 구이 신제품 ‘닭가슴살 슬라이스 구이(400g)’는 22일까지 40% 할인한다.

김상진 홈플러스 트레이드마케팅 총괄은 “행사 상품 구성에 폭넓게 반영했으며 간편함을 선호하는 젊은 고객들을 위해 간편 보양식도 새롭게 선보였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번호
220603-중-139779